

## 다보스포럼(세계경제포럼) 특사 추천

1. 시기 : 1.23(수) ~ 1.27(일)

### 2. 현재 다보스포럼 초청대상자

- 정 부 : 김중수 한은 총재,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, 한덕수 前총리
- 언론계 :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, 윤석민 SBS 부회장 등
- 경제계 : 최태원 SK 회장,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,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, 박홍재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소 소장 등
- 학 계 :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, 이 근 서울대 교수,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

### 3. 당선인 특사 추천

※ 그동안의 특사들은 주로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잘 알거나,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사람이었음.

#### ① 김종인

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외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중 한명이고, 다보스 포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다루고 있음.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기지 않더라도, 다보스포럼에 특사로 보내면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음.

#### ② 김성주

기업인으로 선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, 경제계 인사들이 주축인 다보스 포럼에 당선인 특사로 갈만함. 친화력도 있고, 여성으로 상징성도 있으나 정책을 잘 알지는 못할 것.

#### ③ 한국노총위원장

세계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고, 올해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노조의 협조가 꼭 필요하므로, 노조위원장을 보내서 세계경제의 흐름을

보고 오도록 하면 발상의 전환이 되고,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듯.  
국제노조위원장도 종종 참석하곤 함.  
단, 노총위원장을 보낸다면, 정특사가 아니라 부특사 정도로.

#### ④ 김무성

노무현 때는 정동영, 강금실 등 경제와 상관없는 정치인들을 보냈음.  
만약 정치인을 보낸다면, 선거 때 총괄본부장으로 수고했고,  
차기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무성도  
고려해보실 만한 카드임.